



만루홈런에 '웃고'

KIA 차일목이 8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1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9회초 2사만루 상황에서 엄정욱을 상대로 만루홈런을 친 뒤 환호하고 있다.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준플레이오프 말말말 만루홈런 차일목 “그냥 막 돌렸어요”

▲개선장군들 오네 = 주장 김상훈이 8일 외야에서 스트레칭을 끝낸 선수단이 덕아웃으로 들어오자, 김상훈은 어깨 수술로 경기에 뛠 수 없지만 선수단과 함께 이동하면서 응원을 할 예정.
▲청심환 두 개 좀 사다줘요 = 제대 이후 바로 팀에 합류해 처음 포스트시즌에 출전하는 임준혁, 8일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떨린다며,
▲그냥 막 돌렸죠 = 만루홈런의 주인공 차일목, 포수로서 타격보다는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다면 SK 최고의 투수들을 상대한 만큼 타석에서 부담없이 스윙을 했다고.
▲무슨 일 있었어요? 무섭네 = 8일 경기장에 플러드 취재진을 보고 무섭다고 농담을 한 윤석민, 9일 인터뷰를 하기 위해 취재진이 자신을 둘러싸자 무섭다면서,
▲긴장은 무슨 그런데 사실 1회에는 좀 떨렸어요 = 1차전 경기를 하면서 긴장하는 질문에 긴장 같은 것 안 한다며 큰 소리 치던 나지완, 1회에는 조금 긴장했었다며,
▲트리플 A형 이라고요 = 1차전에서 실책 두 개를 기록한 안치홍이 잠을 설쳤다면 자신은 소심한 A형이라고,
▲무조건 3연승이야요. 투수진들 제가 관리 좀 해주고 있어요 = 플레이오프 때 투수진 보강을 위해 야수진 중 한 명이 빠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던 내야수 홍재호, 각별히 투수진 컨디션에 신경쓰고 있다며,
▲어차피 수술 다시 해야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던걸요 = 8일 홈에서 포수 정상호와 충돌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김선빈, 코수술을 집도했던 담당 교수에게 전화가 왔으며, 김선빈은 시즌 끝난 후 코뼈를 바로잡는 재수술을 받는다.



연장패배에 '울고'

9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 2차전 11회말 2-2 상황에서 한기주가 SK 이호준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한 뒤 덕아웃으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말 선두타자 안치홍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정근우의 좌전안타로 무사 1·2루, 박재상과 최정을 땅볼로 돌려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아웃카운트 하나가 부족했다.
박정권을 고의사구로 걸러내면서 2사 만루, 이호준에게 연달아 세 개의 볼을 던진 한기주가 간신히 풀카운트를 채웠지만 6번째 던진 공이 2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가르면서 끝내기 안타가 됐다.
KIA는 선두타자가 살아나간 10회와 11회 2사 2루의 기회에서 번트좌전 실패와 후속 타 불발로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연승을 달리는데 실패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적지서 1승 1패 “광주서 보자”

준플레이오프 2차전 KIA, 2-3 SK에 '무릎'
1차전에서 윤석민 완투·차일목 홈런 5-1 승

호랑이 군단이 적지에서 1승1패를 안고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는 9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연장 11회 터진 이호준의 끝내기 안타에 2-3 역전패를 당했다. 8일 윤석민의 완투승으로 준플레이오프 첫승을 수확했던 KIA는 11일

광주에서 두 번째 승리를 놓고 SK와 3차전 대결을 벌인다.
선취점은 KIA가 뽑았다.
1회초 선두타자 이용규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로 2루를 밟았다. 김선빈, 이범호가 연속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나지완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이용규가 홈을 밟았다.

1-0으로 앞선 5회초에는 '박초이' 최희섭이 부활을 알리는 한방을 쏘아올렸다. 최희섭은 5회 1사에서 SK 선발 송은범의 직구를 강타해 포스트시즌의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하지만 5회말 1사에서 KIA 선발 로페즈가 정근우와 박재상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점수는 다시 2-1, 1점차로 좁혀졌다. 7회에는 SK 안치홍의 동점포가 나오면서 2009년 한국시리즈 영광재현에 나섰던 로페즈는 2-2의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양팀 타선이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볼넷 싸움이 전개됐

제 1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 4R 홈런 10개 타선 '폭발' 승부는 1점차 '살얼음'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네 번째 열전이 펼쳐졌다.
9일 광주시 북구 용정동 용산 A구장에서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4라운드 경기가 진행됐다.
지왕리그 16강 대결로 전개된 4라운드 경기에서 나이너스, 새한기업 재규어스, 에스컴 스카이, 승천 드래곤즈가 나란히 8강행을 확정했다.
나이너스는 1경기에서 윤형환의 3점 홈런을 포함 2회 말에만 9점을 뽑아내는 등 막강 화력으로 하리마오를 17-5, 4회 콜드승으로

누르고 지왕리그 첫 번째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2경기에서는 새한기업 재규어스가 3회와 5회 각 2점 홈런을 쏘아 올린 김형석의 활약에 힘입어 화이트 샤크를 9대 8로 눌렀다.
에스컴 스카이와 액터스의 3경기에서는 5개의 홈런이 쏟아졌다. 액터스의 류진호가 1회, 2회, 6회 3개의 홈런을 몰아쳤지만 팀은 12-13으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다.
승천 드래곤즈는 4경기에서 광주 레인보우를 14-10으로 누르고 4번째 8강행 티켓을 획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왕리그 16강전

▲1경기
하리마오 0 2 3 0 X X X - 5
나이너스 4 9 4 X X X X - 17
△승리투수 김준섭
△홈런 윤형환(1회 3점·나이너스)

▲2경기
새한기업 재규어스 2 0 2 0 3 2 X - 9
화이트 샤크 0 2 0 1 3 2 X - 8
△승리투수 김승걸
△홈런 김형석(3회 2점, 5회 2점) 국범석(6회 1점 이상 새한기업 재규어스), 김중호(4회 1점·화이트 샤크)

▲3경기
액터스 3 5 0 1 0 3 X - 12
에스컴 스카이 1 1 6 2 3 X X - 13
△승리투수 이동훈
△홈런 류호진(1회 3점, 2회 4점, 6회 3점·액터스), 주민호(4회 2점) 이동훈(5회 3점·이상 에스컴 스카이)

▲4경기
승천 드래곤즈 2 1 6 0 5 X X - 14
광주 레인보우 3 0 5 1 1 X X - 10
△승리투수 김희진

“상대가 김광현이어서 더 잘던지고 싶었다”



1차전 MVP 윤석민 “완봉 못했지만 이겼다는 것이 중요”

“완봉을 하고 싶었다. 부담감을 단만큼 차분하게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8일 SK 와이번스 김광현과의 이스 맞대결에서 9이닝 1실점의 호투로 완승을 거두며 MVP에 선정됐다. KIA는 윤석민의 완투와 9회초 터진 차일목의 만루포를 앞세워 5-1로 SK를 제압하고 2011 준플레이오프 첫 승을 가져왔다.
‘마구’ 슬러 리더를 주무기로 최고구속 151km의 직구를 구사한 윤석민은 9회까지 단 3개의 안타만을 내주며 포스트 시즌 41번째 완투승의 주인공이 됐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5번째 나온 완투승이다.
윤석민은 “올 시즌 4관왕에 오르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포스트시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상대가 김광현이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속이 시원하다”며 승리 소감을 밝혔다.
또 “SK 타자들이 공격적으로 승부를 해서 공격적으로 맞섰다. 덕분에 투구수도 적었고, 완봉에 대한 욕심도 나서 9회에도 등판을 했다. 완봉은 못했지만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